

왕십리~수원 복선전철 전 구간 개통

- 마지막 4단계 구간인 망포~수원 11월 30일 개통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왕십리~수원 복선전철(51.6km) 마지막 4단계 구간인 망포~수원(5.2km)구간 복선전철을 완공하고 11월 30일 개통했다.

왕십리에서 수원까지(51.6km)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서 왕십리~망포(46.4km)구간은 2012년 12월까지 단계별로 개통됐으며, 이번 망포~수원(5.2km)구간이 완공되면서 전 구간이 개통됐다. 이를 위해 본부는 11월 29일 수원시청역 인근 올림픽공원에서 지역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가졌다. 왕십리~수원 복선전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동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원역에서 왕십리역까지 1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왕십리역에서 수도권 북부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수인선(수원~인천, L=52.8km)과 연결되면 서울 강북·강남과 경기동서남부(수원, 안산, 시흥) 및 인천이 전철망으로 연결되어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본격 추진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12월 4일 안동시(철도공인장)에서 중앙선 도담~영천 148.1km 복선전철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시속 250km의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의 기능 강화와 경북내륙지역 철도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총사업비 3조6473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청량리~영천간 운행시간이 현재 4시간 56분에서 1시간 48분으로 무려 3시간 8분이 단축되어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지역을 연결하여 교통편의 증진,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최적화할 것이며, 앞으로는 창의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최고 품질의 철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산업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취득

-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할 핵심 기술인력 지속 양성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한국철도기술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할 핵심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해 온 결과 11월 26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공동 주관으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공단은 2011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한국 철도산업을 선도할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56명의 철도공학석사를 양성했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28명을 선발하여 철도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우수기관 인증 취득은 그간의 기술인력 양성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더불어, 2013년 한 해에만 약 300여 개의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운영해 연인원 약 7200여 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등 소속직원의 직무능력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여 전체 직원 1342명의 약 36%인 482명을 석·박사학위 내지 기술사자격 등을 보유한 핵심인력으로 양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핵심인력을 현원의 50%인 67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공단 직원뿐 아니라 국내 70개 협력사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품질, 환경, 안전, 철도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캠프다아, 네발, 몽골 등 해외 철도공무원 22명에 대한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국내 철도기술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품질경영대회 3개 부문 대통령상 수상

기획지원본부(본부장 김영연)는 서울 삼성동 한빛홀(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3개 부문에 걸쳐 대통령상(동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 '자유형식부문'에서 터널 시공 중 내부 단면강도 보강을 위한 슛크리트 타설 시 최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강성유 투입양을 최적화(40kg/m³~37kg/m³)하여 사업예산 450억을 절감, ▲ '6시그마부문'에서는 가파역 등 3개역 역무시설을 운영계획에 맞추어 축소·조정하여 2900만원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시설을 늘린 사례, ▲ '상생협력부문'에서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 End-user까지 공사대금 및 임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에게 민간협력제도 조성 및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지원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사례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공단이 추진해온 제도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거시 안주하지 않고 고속철도건설을 대외적으로 인한 공단의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 해소 및 공사비 사면 차단 등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품질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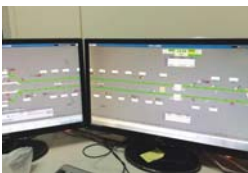
공항철도 KTX 연계운영 2014년 2월 개통

- 시설물검증 시 발견된 신호 오류 개선 후 추가 안전 시험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공항철도 KTX 연계사업을 12월 28일 개통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던 중,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신호등을 작동시키는 전산화선의 접속 불량으로 신호등과 관제센터 간의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어 즉시 보수하고, 저속/고속 주행시험 등 추가 안전 시험을 시행한 후 2014년 2월 개통한다. 공항철도 KTX 연계사업은 2011년 6월 착공하여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2.2km의 노반과 궤도 및 전차선·신호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19일까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 사전점검까지 이상 없이 완료했다.

그러나 전동열차(AREX)를 운행 중인 공항철도 선로에 신호시스템이 다른 KTX를 추가로 투입해야하므로 선로와 KTX 열차 간, AREX 열차와 KTX 열차 간 신호시스템의 호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AREX 열차운행이 끝난 심야시간(01:00~04:00)에 충분한 추가시험을 거쳐 40일 간의 영업시운전을 시행한 후 개통할 계획이다.

(관제실과 신호등 간 신호 불일치 현상)



관제실 조작반 (복색)



지상신호등 현시 (적색)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터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 제1~5공구 총 공사비 9394억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 계약자는 11월 29일 총사업비 1조6553억원이 소요되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노반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터키) 5개 공구(9394억원)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로서 1공구는 (주)대우건설 컨소시엄, 2공구는 한라건설(주) 컨소시엄, 3공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4공구는 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 5공구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결정했다.

계약자는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이 동반 참여하는 경우 입찰자에 대한 가·감점제(▲지역업체 1개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 ▲중소기업 지분 10% 이상 시 가산 평가) 및 1개사에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1사1공구 낙찰제도를 적용했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징액 제도를 도입했다.

또 업체에서 제출한 기본설계도서에 대해 평가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 29명의 심의위원 중 15명은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중앙 설계심사분과위원과 외부심의위원을 참여시켰고, 입찰참여업체에서 심의위원 추천에 직접 참여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계약자는 본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곧바로 우선시공 구간부터 착공하여 노반공사와 시스템설치가 완료되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시행하고, 이어 3개월간 영업시운전을 거쳐 후 2018년 10월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통행시간이 20분 단축되는 등 수도권 전·출입 교통이 개선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공사 최종 낙찰자 결정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9월 25일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낙찰업체(대표사 기준)로 진흥기업(주)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총 3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공단은 최저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입찰금액 적정성 1단계 심사(10.13~11.18)를 시행한 결과 ▲부적정공종수 6개 이상 초과 11개 업체와 ▲공종별 산출내역서(간접공사비 및 직접노반비) 부적정 2개 업체를 탈락시켰으며 그 결과를 11월 19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바 있다.

1단계 심사를 통과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26일 5개 부적정 공종별 세부내역에 대한 2단계 적정성 심사를 시행한 결과, 최저가 1순위 업체(진흥기업)의 가격산출 및 구성비율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 등의 심사결과 모두가 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됨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낙찰자가 결정됨으로써 2018년 사업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영일만신항 및 배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 중 연간 140만톤을 철도로 수송해 울산~포항 복선전철 및 동해중부선, 중앙선과 연계되어 화물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의식 함양 위한 법무교육 실시

기획지원본부(본부장 김영연) 법무처는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법령, 소송관련 법령 등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법무교육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계약 등의 법 상식, 소송절차, 간접비 소송예방 및 업무상 배임·횡령 등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으로써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사 및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형태로 시행했다.

법무처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상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무지식, 준법 의식 함양은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